

분노의 통곡

이기형

천금 옥답은 어데 갔나
잘난 형제는 어디로 갔나
야밤 광야에서 슬피 운다
떠나간 그이가 그리워서 아니다

일제 36년 그때에는
노래는 마디마디 슬픔이 짙었건만
미제 분단 59년 오늘에는
서툰 사랑노래만이 부끄럼 없이 판을 친다
분단의 슬픔은 털끝만도 없어
쇠사슬 악법을 없애자는 소리가 높아지자
결사 안된다고 팔을 걸어부치고 펄펄 뛰는 면면들
술한 목숨을 죽이고 가두고 병신만든 파렴치한들
생사람을 잡아 전진하는 역사를 사생결단 가로막았거니
치켜든 손에 임리해라 피가 묻었다
저레, 역사, 민중과는
아예 철담을 쌓고
일신의 안위와 영달만을 악착같이 찾은 군상들
양심도 정의도 팽개친 지 오래다
늪우침도 사죄도 모른다
입술로는 아무리 단군을 조잘여도
홍익인간 정신을 싹쓸이 짓밟았다
21세기 밝은 대낮에
어찌자고 또다시 저럴꼬
분노의 통곡을 멈출 수 없다
누가 뭐래도 역사는 앞으로 나간다
새날은 기어코 오고야 만다

(2004. 9. 13 용인 진산마을에서)